

삼성Atofina, 삼성-Total로 개명

Total 그룹 개편 따라 ... Specialty는 4개 자회사 쪼개 독립경영

Atofina가 2004년 10월1일 Atofina의 석유화학 사업부를 Total Petrochemicals로 분리함과 동시에 Atofina의 자회사들도 독립시켜 Total 그룹의 Chemicals Branch로 재탄생시킬 방침이다.

2004년 10월1일부터 시작되는 조직개편에 따라 Total 그룹의 화학사업은 8개로 분리되는데 C.I.P(가칭)를 비롯해 Total Petrochemicals, Grand Paroisse, Hutchinson과 함께 Specialty 부분인 Bostik Findley, Cray Valley, Atotech, Sartomer 등으로 재탄생한다.

Atofina Korea가 담당하고 있는 화학사업은 C.I.P(가칭)로 개편되며, 삼성Atofina는 삼성-Total 석유화학 (Samsung Total Petrochemicals)으로 개명할 예정이다.

Atofina Korea의 심우정 부사장은 “Total 그룹의 화학사업이 Atofina의 자회사 형태로 운영되다 보니 정책 결정과정이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 등 사업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폐단이 발생하고 있어 급변하는 화학시장에 더욱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자율경영과 책임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Total 그룹의 화학부문 자회사로 새롭게 재편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재편으로 국내에 존재하는 화학기업은 접착제 사업의 Bostik Findley, Resin 사업의 Cray Valley, 전자산업용 전기도금 사업의 Atotech, 비료부문의 Grande Paroisse, 석유화학부문의 삼성-Total Petrochemicals이고, 현재의 Atofina Korea와 Seki Atofina 사업부문은 C.I.P(가칭)에 복속된다. <한유진 기자>

<화학저널 2004/07/19>